

##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적 고찰\*

김 병 하\*\*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인물중심으로 한국 특수교육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시대구분을 태동기(15세기 이후), 성립기(1894-1909), 과도기(1910-1944), 전개기(1945-1960년대)로 설정하고 각 시기마다 대표적 인물로 세종대왕(본명 李祹), R. S. Hall(許乙), 박두성(朴斗星), 이영식(李永植)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먼저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 시대구분 설정 기준과 각 시대구분에 따른 인물선정 이유를 논의하였다. 이어 선정된 각인물의 생애사적 개관과 그들의 주요 특수교육 업적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면서 논평을 가했다.

‘태동기’에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를 통해 후에 한글점자에 의한 맹교육의 길을 터주었고, 한글지문자(指文字)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농교육에 도움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1445년(세종 27년)에는 맹인들을 모아 서운관(書雲觀)에서 음양학을 중심으로 점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근대사회에서 명백한 맹교육 실천 사례(史例)를 남겨주고 있다. 19세기 말 근대적 문명개화에 편승하여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에 의한 신교육과 서양의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R. S. Hall에 의해 평양에서 근대 특수교육이 성립된다. 일본 식민통치하(과도기)에 박두성은 조선어말살 정책에도 불구하고 맹인들을 위해 ‘훈맹정음’을 창안(1926)하였으며, 그는 일생을 통한 애맹(愛盲) 정신으로 맹인들에게 신약성서 점역 보급과 점자통신교육을 실시하였다. 광복 후(전개기)에 이영식은 국가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무 한 상황에서 1946년 대구에서 맹교육과 농교육을 시작한 이래, 10년 후에는 특수교육 지도자양성을 위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10년 후(1966)에는 정신지체아교육과 지체부자유아교육도 처음 시작하였다. 이처럼 이들은 모두 당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선구적 개척자였기에, 한국 특수교육 역사정립의 중심인물로 선정·평가될만하다.

주제어 : 인물중심 특수교육, 한국 특수교육, 특수교육역사

### 1. 서 론: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 요구학생들에 대한 공적 관심이 제도적으로 처음 표명된 것은 1977년 말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이래로 볼 수 있으나,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공

\* 이 연구는 200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kimha@daegu.ac.kr)

교육제도'가 1988년에 도입된 이래 실질적으로 정착된 것은 1994년에 특수교육진흥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부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공교육으로서 특수교육이 확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 분야의 선구자들에 의해 실천되어 왔다.

일찍이 세종대왕은 1443년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하여 온 국민에게 한글을 반포함으로써, 이것이 모태가 되어 후에 맹인들을 위해 한글 점자(點字)가 창안(Hall, 1897; 박두성, 1926)되고 청각장애인을 위해 한글 지문자(指文字)가 개발(윤백원, 1946)되는 길을 열어 주었다. 뿐만 아니라 세종대왕은 장애인 복지와 교육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구휼(救恤)정책을 펼쳐 오던 중, 1445년에는 '서운관'(書雲觀)에 젊고 유능한 맹인들을 별도로 모아 음양학을 중심으로 점복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세종대왕은 단연 이 나라에 특수교육을 '태동'케 한 선구자의 반열에 든다.

19세기 말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영향을 받아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에 의해 신교육과 서양의술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감리교 의료선교사인 Rosetta Sherwood Hall 여사는 남편과 함께 평양에서 의료사업을 펼치던 중 1894년 5월에 맹여아 오봉래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맹교육에 관심을 가진 이래, 1897년에는 뉴욕식 한글점자를 고안하여 이듬해에 '다시' 봉래를 대상으로 점자지도로 체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Hall 여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근대적 맹교육을 시작하였고, 그 후(1908년) 이익민과 또 한 사람의 선교사를 중국에 있는 동료 선교사(Mill)가 운영하는 농학교에 보내 농교육 방법을 익혀오게 하여 1909년에 기존의 맹교육과 함께 농교육도 평양에서 처음 실시하였다. 이처럼 Hall('허얼'이라는 조선이름으로 불리어지기도 했음) 여사는 우리나라 근대 특수교육의 성립과정에서 그 선구적 개척자가 되었다.

일제 식민통치기에 조선총독부 산하에 제생원(濟生院) 맹아부(盲啞部) 교사로 부임(1913)한 송암(松庵) 박두성(朴斗星) 선생은 1923년에 조선어 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한글점자 연구를 시작한 이래, 1926년에 마침내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안하여 반포하기에 이른다. 그 후 박두성 선생은 '애맹'(愛盲) 정신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오면서 신약성서 점역 아연판 제판에 착수하여 약 10년 만에 완성하는 한편, 자비로 전국의 맹인들을 대상으로 점자통신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박두성 선생은 우리나라 과도기(일제치하) 맹교육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우뚝한 '애맹' 지도자로 칭송받고 있다.

광복 직후에 이영식(李永植) 목사는 대구에서 광복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46년에 대구맹아학교(大邱盲啞學校)를 설립함으로써, 광복 후에 민간인으로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선구자가 되었다. 그 후 이영식 목사는 특수교육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1956년에 대구이공학원(大邱理工學院, 대구대학교의 전신)을 설립하고 이를 토대로 1961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4년제 대학(한국사회사업대학)에 특수교육과를 설치하였다. 이어 1966년에는 정신지체아를 위한 특수학교(대구보명학교)와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특수학교(대구보건학교)도 전국 최초로 설립함으로써, 그는 광복 후 맹교육과

농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아교육과 지체부자유아교육에 있어서도 개척자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15세기 중엽 세종대왕에 의해 특수교육이 ‘태동’(胎動)된 이래, 19세기 말에는 개신교 선교사인 R. S. Hall 여사에 의해 평양에서 최초로 근대 특수교육이 ‘성립’(成立)되었다. 그 후 일제식민 통치하에서는 제생원 맹부(盲部) 교사로 일하던 박두성 선생이 한글점자로 ‘훈맹정음’을 창제하여 ‘과도기’(過渡期)에 서울에서 맹교육을 주도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광복 후에는 이영식 목사가 대구를 중심으로 맹교육과 농교육은 물론 이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개척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지체아교육과 지체부자유아교육에 이르기까지 특수교육 ‘전개기’(展開期)에 그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통사적(通史的) 측면의 특수교육역사 정리는 일찍이 안병준(1974)의 연구가 있는 이래, 필자(1977)가 세계 속의 한국 특수교육역사를 다룬 적이 있으며, 이어 임안수(1984)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맹인 직업교육 중심으로 특수교육역사를 정리하였다. 그 후 대한특수교육학회(1995)에서는 한국 특수교육 10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특수교육100년사’를 전국적으로 32명의 집필자가 참여한 가운데 방대한 자료로 간행하였으며, 김정권과 필자(2002)는 1894년을 기점으로 2002년까지 우리나라 특수교육역사를 100개의 토픽 중심으로 ‘사진으로 보는 한국 특수교육역사’를 정리하였다. 또한, 최근에 이석진(2005)은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 특수교육정책 발전과정”에 관한 역사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필자(김병하, 2007)는 지역사(地域史) 내지는 지방학(地方學)의 측면에서 ‘대구특수교육사’를 정리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정책제도사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역사를 정리하였거나, 특정 장애영역이나 역사적 사건 또는 지역 중심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역사를 정립하고자 한 것이었다. 물론 이들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당대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것은 거시적 제도사(制度史)의 틀 속에서 하나의 변수로 다루어질 뿐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 시대를 대표할 ‘역사적 인물들’이 한국 특수교육역사 정립에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갖는가를 논평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수교육역사를 미시적이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런 취지와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구명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의 두 갈래로 대별된다.

첫째로,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 정립을 위한 시대구분과 인물선정 기준을 논의한다.

둘째로,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사 정립에 선정된 대표적 인물을 시대별로 개관하고 논평한다.

## II.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의 시대구분과 인물선정 기준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의 시대구분은 기본적으로 한국 특수교육역사의 통사적(通史的) 시대구분 기준에 의해 규제될 수 있다. 일찍이 안병준(1974)은 한국 특수교육 발달과정에 관한 역사연구에서 시대구분의 기준을 (1)한국 특수교육의 기원(1894-1909), (2)광복이전의 특수교육(1910-1944), (3)광복이후의 특수교육(1945-1960년 이전), (4)발전기의 특수교육(1960년대 이후) 등으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특수교육학회(1995)에서는 한국 특수교육100주년을 기념한 '한국 특수교육100년사' 정리를 통해 그 시대구분의 기준을 (1)특수교육의 전사(前史; 왕권시대의 특수교육), (2) 특수교육의 성립과정(1894-1909), (3)수난기의 특수교육(1910-1944), (4)광복 이후의 특수교육(1945-1977), (5)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과 전개(1978-1994) 등으로 설정하고, 말미에 한국 특수교육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특수교육역사의 시대구분 기준설정에는 그 역사정리의 목적과 수행된 연구의 시점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이를테면, 안병준은 1970년대 초에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를 정리하는 입장에서 1960년대 이후를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기'로 잡고 있으나, 대한특수교육학회(1995)에서는 광복 이후의 특수교육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된 시기를 기점으로 그 이전은 '민간주도의 특수교육 전개기'로 보고, 그 이후를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정책의 수립과 전개기'로 나누어 시대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물중심'으로 한국 특수교육역사를 정리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전술한 주요 선행연구의 시대구분이 하나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겠으나, '누가 어떻게' 우리나라 특수교육 역사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가에 따라 그 설정 기준은 나름의 독자성을 지닐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물중심의 한국 특수교육역사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시대구분을 하고, 그에 따른 대표적 인물을 각각 한 사람씩 선정하여 역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로, 전근대적 왕권시대에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이 '태동'(胎動)될 수 있게 한 대표적 인물로 세종의 업적에 주목하여, 전근대적 왕권사회에서 장애인 복지와 교육에 관심을 보인 전형적 군왕으로 조선조의 세종대왕을 선정한다.

둘째로, 19세기말 근대사회에 접어들며 프로테스탄티즘의 도입과 더불어 우리나라 근대 특수교육의 '성립과정'에서 신교육의 일환으로 특수교육을 주도한 사람으로 개신교 선교사인 R. S. Hall 여사를 선정한다.

셋째로, 일제 식민통치하의 '과도기'에 한국인으로서 맹교육을 중심으로 특수교육을 주도적으로 실천해 왔을 뿐만 아니라, 평생을 애맹(愛盲)정신으로 살아온 송암(松庵) 박두성 선생을 선정한다.

끝으로, 광복 직후부터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간인으로서 한국 특수교육을 주도

적으로 ‘전개’해 온 대표적 인물로 성산(星山) 이영식 목사를 선정한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인물중심의 한국 특수교육역사 정립을 위해 그 시대구분을 (1) 태동기(조선시대), (2) 성립기(구한말), (3) 과도기(일제식민통치기), (4) 전개기(광복 이후에서 1960년대까지)로 대별하고, 각 시대별 대표적 인물로 (1) 세종대왕(태동기), (2) R. S. Hall(성립기), (3) 박두성(과도기), (4) 이영식(전개기)을 각각 선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첫째로, ‘태동기’의 설정과 세종대왕의 선정

일반적으로 특수교육역사 연구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이 특수한 방법과 자료에 의해 의도적으로 실천되기 이전 단계를 묶어서 ‘특수교육의 전사’(前史; pre-history)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대한특수교육학회, 1995; 荒川, 197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조선조 세종대왕이 한국 특수교육역사에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이 ‘태동’(胎動) 되는데 직접 간접으로 미친 영향을 다음 세 측면에서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조선 세종조의 복지정책 자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조에 활발히 시행된 복지정책으로서 진휼(賑恤)제도와 구휼(救恤)제도는 장애인 복지정책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이문수(1987)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조선 세종조의 복지정책’을 진휼과 구휼(救荒)정책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논의하였으며, 이태영(1961, 1984)은 세종조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구휼제도(救荒制度)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복지정책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복지정책은 넓은 의미에서 고려조부터 그 근간이 이어져 왔다고 볼 수 있으나, 특히 조선조 세종조에 와서 장애인을 포함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구휼정책 및 구휼제도로써 그 체계를 잡아 실천되어 왔다. 이런 의미에서 세종대왕은 왕권시대를 통틀어 장애인을 포함한 어려운 사람들의 구휼(救恤)을 위해 ‘복지정책’의 전범(典範)을 보여 준 대표적 성군(聖君)으로 꼽을 만하다.

둘째로, 세종대왕은 시각장애인들의 재능을 높이 인정하여 세종 27년(1445)에 맹인들을 따로 모아 서운관(書雲觀)에서 음양학(명과학) 등을 중심으로 점복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것은 전근대사회에서 맹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실천한 대표적인 사례(史例)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물론 이 ‘서운관’은 정규교육기관으로 상설(常設)된 것은 아니었지만, 세종조에 맹인들에게 직업교육으로서 점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일종의 특수교육기관 역할도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임안수(1986)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맹인들에게 공적으로 점복교육을 실시한 나라로 손꼽을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맹교육은 Hall 여사가 시작한 1894년이 아니라 조선 초기인 1445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성립 기점을 언제부터로 잡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별도의 논의를 요하는 복잡하고도

민감한 사안이다. 그러나 우리가 인물중심으로 세종대왕의 장애인정책에 주목할 때, 세종 27년에 ‘서운관’에서 맹인들을 모아 점복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은 한국 특수교육역사 정립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로, 세종은 즉위 25년(1443)에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데 필요한 바른 소리(正音)를 표시하는 자모음 글자 28자를 창제하였다. 이 글자를 우리는 ‘훈민정음’(訓民正音)이라하며, 이로써 우리나라 소리 말을 모두 이 글자로 기록할 수 있게 되어 우리는 세계적으로 문명국의 반열에 들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전 세계의 언어 수는 약 6천여 개로 추정되지만, 영어를 비롯한 거대 주류 언어들이 세계화에 편승하여 언어생태계를 크게 파괴하고 있는 가운데 소수 토속 언어들이 급속히 사멸되어 가고 있으나, 현재 한국어는 세계 16대 언어로 건재하고 있다(교수신문, 2008. 6. 30. 제486호). 이것은 필자가 보기에 우리의 음성언어를 뒷받침하는 문자언어로 ‘한글’이 고유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과학적 문자언어로 한글이 세종에 의해 창제되고 전승되어 왔으므로 오늘날 맹인들을 위한 특수문자로 한글점자(훈맹정음)가 사용되고, 농인들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으로 한글 지문자(指文字)가 활용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상에서 지적한 세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에서 세종대왕을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태동’하게 한 중심인물에 올려놓지 않을 수 없다.

#### 둘째로, ‘성립기’의 설정과 R. S. Hall의 선정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이 ‘언제 누구’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문제는 그간 학계에서 다소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특수한 방법과 자료에 의해 ‘근대적’ 특수교육이 처음 시작된 것은 프로테스탄트 의료선교사인 R. S. Hall 여사에 의해 평양에서 시작되었다는 데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Hall 여사가 평양에서 특수교육을 시작한 연대를 1894년으로 볼 것인가 혹은 1898년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1894년 설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주장은 백낙준(1973), 안병준(1974), 김정권(1994) 등이 있으며, 1898년 설을 지지하는 대표적 주장으로는 안태윤(1968), 임안수(2005) 등이 있다. 이들 양자의 내용을 좀 더 엄격히 분석해 보면, 1894년 설은 Hall 여사가 평양에서 맹여아 오봉래를 처음 만나 개인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그 기점을 잡고 있는 반면에, 1898년 설은 Hall 여사가 뉴욕식 한글점자를 고안하여 체계적으로 봉래에게 ‘점자지도’를 시작한 것을 그 기준으로 잡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성립 연대를 설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 1894년 설과 1898년 설로 각각 불일치하는 쟁점이 남아 있다.

특히 임안수(2005)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근대 한국 특수교육의 기원연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성립 기원연대는 1894년이 아니라 1898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그 근거로 다음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즉, 첫째로 홀 여사 자신을

비롯해서 당시 선교사들의 보고에 의하면 1898년에 ‘평양맹학교’가 설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로 아들 홀 의사의 ‘조선회상’에는 어머니 홀 여사가(1894년 평양에 체제하고 있을 때) 기름먹인 한지에 바늘로 점을 찍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이것은 하나의 시도에 불과했지) 이것으로 점자지도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며, 셋째는 객관적으로 1894년 당시에 홀 여사가 평양에 머무는 동안(동년 5월 8일에서 6월 5일까지)의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평양맹학교를 설립하거나 봉래에게 점자를 가르칠 만큼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등이다(임안수, 2005).

필자가 보기에 홀 여사가 봉래에게 뉴욕식 한글점자를 고안하여 체계적으로 점자지도를 시작한 것은 1898년이 틀림없으나, 홀 여사는 1894년에 봉래를 처음 만나 맹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지도를 했고 1898년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그 일을 시작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근대 특수교육의 시작연대는 1894년으로 소급하여 잡아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초기의 학교설립 연대 설정은 당시 같은 선교사들이 설립한 배재학당이나 이화학당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초에 개별학생을 만나 교육을 시작한 것을 그 기준으로 잡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다.

홀 여사는 원래 의사로서 우리나라에 여성 환자들을 진료하기 위해 파행되었으나, 그녀가 평양에서 일하던 중 남편에 의해 기독교로 귀도 한 오석형(吳錫亨)의 딸인 맹여아 봉래를 만나게 된 것이 그녀가 특수교육을 시작하게 된 하나의 소중한 인연이 되었다. 1984년 11월 남편(William James Hall)이 젊은 나이에 사망한 후 그 충격이 너무 커 일시 귀국해 있던 중에 한국에 돌아가면 다시 이 일을 체계적으로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홀 여사는 본격적으로 뉴욕맹학교의 점자시스템을 익혀 ‘뉴욕식 한글점자’를 고안하였다. 홀 여사는 1897년 늦가을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 십계명과 4복음서의 일부를 직접 점역하였으며, 1898년에는 봉래에게 직접 점자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하였다. 당시에 자신이 직접 맹인용 점자교과서를 제작하여 봉래를 지도한 것에 대해 홀 여사는 친필로 다음과 같이 적어 놓고 있다.

The 1st embossed book for the blind of Korea : the syllabary and 1st six lessons Mrs Jones "Cho Hak Eunmun" pricked on oiled K.(Korea) paper by hand 1897 before receiving the proper apparatus from the N Y Inst(New York Institute) for the blind - and worn smooth by the fingers of - 1st blind child to learn to read in Korea 오봉래 during 1898 at Pyung Yang.(자료출처: 김정권 교수 제공, 2006. 12)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홀 여사는 Jones 부인이 배재학당 국어교과서로 제작한 ‘초학언문’(즉, 초등국어)의 한글 24개 자모와 제6과까지를 뉴욕맹학교에서 점자기가 도착하기 전인 1897년에 한지에 기름을 먹여 손으로 직접 책을 제작하였다. 1898년 평양의

첫 번째 맹학생인 봉래가 한글 읽기학습을 손으로 반복하여 점자가 다 닳았다고 적고 있다. 이로써 봉래는 우리나라에서 한글점자를 익힌 첫 번째 맹학생이 되었으며, 1900년에는 일반학교 내에 맹여아들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이때부터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특수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00년 추수감사절의 일기에서 Hall 여사는 “나는 맹인을 위한 사업을 더 진전시켜야겠다. 정진여학교의 맹학급에는 이제 4명의 훌륭한 맹소녀들이 있다. 그러나 새로 맹여학생들을 지도할 교생(the pupil-teacher)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은 더욱 많다”(1900년 11월 27일자)고 적고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1900년 신학기에는 정진여학교에 맹여아를 위한 특수학급이 설치 운영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Hall 여사가 새로 맹여학생을 지도할 ‘교생’은 그 무렵(1900년 11월 23일자)의 일기에서 “Pongnai, my blind pupil-teacher”라고 적은 것을 보면, 그녀가 처음 가르친 맹소녀 봉래를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이 무렵부터 Hall 여사는 자신이 직접 맹소녀들에게 점자지도를 하는 대신 봉래를 점자지도 수석 교생으로 활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Hall 여사가 그간 혼자 자력으로 맹교육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이 본국의 선교본부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 1903년부터는 평양의 병원과 시료소의 책임과 더불어 맹교육의 책임도 공식적으로 맡는 임명을 받게 된다. 즉, 1903년 감리교 연회록에는 “Hospital, Dispensary and Blind School : Rosetta S. Hall, MD”(Official Minutes of the Nineteenth Annual Meeting Korea Mission, 1903, p.22)라고 적고 있어,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후 홀 여사 이외에도 장로교 선교사인 Alice F. Moffett 부인은 1903년에 평양에 남자맹인학교를 설립하였으며, J. Perry 부인은 1900년경에 서울에서 남맹아를 위한 수용보호와 교육을 실시하였다(안병준, 1974; 김병하, 1977). 그러나 이들의 사업이 그 뒤에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서울에 수용된 남자 맹인들은 후에 설립된 공립맹아학교(필자주: 제생원 맹아부를 일컫는 것임)로 옮겨졌다.”(H. H. Underwood, 1926, p. 153)고 한 것을 보면 그 명맥이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맹여아를 위한 학교 교육이 점차 기반을 잡아감에 따라 Hall 여사는 농여아를 위한 교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그 준비에 착수했다. Hall 여사는 1892년 남편과 함께 신혼여행 길에 중국 철후(Chefoo)를 들러 동료 선교사가 그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미 Hall 여사는 농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백낙준 박사는 「제 1회 극동 맹·농 교육자 회의 보고서」(Report of the Annual Convention on the Blind and Deaf in the Far East, 1914)에서 인용하여 한국 최초의 농교육 시작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당시 교육사업은 그 범위가 매우 넓어서 그 상세한 기록을 남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우리는 평양에서 맹인을 위해 수행된 훌륭한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을

수 없는데, 이미 소개한대로 이 사업은 Hall 여사에 의해 시작되었다. 1909년에 농교수법을 연수케 하기 위해 그녀는 중국 체후에 이익민을 파견했다. 이 씨는 귀국시에 그 학교에서 훈련받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왔다. 이 두 사람의 조력으로 홀의사는 한국에서 최초로 농학교 교육을 시작하였다(L. George Paik, 1929, p.403).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농교육은 처음부터 한국인으로 하여금 미리 교수방법을 익히게 한 다음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언더우드(H. H. Underwood)는 「Korea Mission Field」에서 인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농교육의 성립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맹교육이 시작 된지 10년 후에 Hall 여사와 록웰(Rockwell)씨는 중국 체후에 있는 밀(Mill)부인의 농학교에 농교육 시스템을 배우게 하기 위해 한국인 한 사람과 그의 처(즉 Rockwell씨의 부인)를 파견했다. 그들은 그곳에서 농교수법을 확실히 익혀 다른 사람들을 지도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평양에 있는 작은 학교는 그간 결코 많은 시설이 확충되지 않았지만, 이제 맹과 농 양쪽 모두를 위한 기관으로 발전했다(H. H. Underwood, 1926, p.153).

이상의 기록에 의하면, 전술한 백낙준의 인용보고와 Hall 여사에 의해 추진된 농교육의 시작 연대가 1909년과 1908년으로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언더우드는 맹교육을 시작한지(Underwood는 1898년으로 밝힌 바 있음) 10년 후라고 했으니 1908년이 되며, 또 그의 「Modern Education in Korea」의 부록 연표에서도 “1908: Classes for the Deaf begun; in Pyengyang in connection with School for the Blind”(H. Underwood, 1926, p.327)라고 적고 있어, 백낙준 박사가 인용한 농교육 시작 연대(1909)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Hall 여사의 외아들 셔우드 홀 박사는 그의 「조선회상기」에서 “1908년 평양 부인병원의 새 건물이 완성된 다음 해에 맹인을 위한 교육사업에 농아자가 포함됨으로써 그 사업이 확장되었다.”(Sherwood Hall, 1978, p.219)고 적고 있어, 아마 농교육의 준비를 위해 중국에 연수를 보낸 것은 1908년이겠지만, 실제로 농학생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작한 것은 1909년인 듯싶다. 어쨌든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Hall 여사에 의해 평양맹아학교에서 최초로 농교육까지 시작되었으며, 이를 기념하여 2009년에 한국 농교육1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한국청각장애교육100년사’가 현재 편찬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Hall 여사는 1894년에 평양에서 한 맹여아에게 문자지도를 시도한 이래, 1898년에는 그녀 자신이 고안한 뉴욕식 한글점자 체제에 의해 점자 교재들을 개발하여 맹여아에 대한 점자지도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오다가 1900년에는 학교교육(특수학급 교육의 형태)의 체제로 맹교육을 발전시켜 왔다. 이어 Hall 여사는 1908년부터 농교육의 실시를 위한 준비단계를 거쳐, 1909년에는 농교육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실시함

로써, 그녀는 한국 특수교육의 성립과정에서 그 개척자가 되었다.

### 셋째, ‘과도기’의 설정과 박두성(朴斗星) 선생 선정

전근대사회에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조선조 세종대왕에 의해 ‘태동’ 되었으며, 근대적 특수교육은 19세기말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의 도래와 더불어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이 전개되는 와중에 평양에서 감리교 의료선교사인 R. S. Hall에 의해 처음 ‘성립’(시작) 되었다. 그 후 일제 식민통치하에서는 조선총독부 산하에 제생원(濟生院) 맹아부(盲啞部)를 두어 시각장애아동과 청각장애아동을 수용보호하면서 교육을 병행하였다. 제생원 맹아부는 사회복지적 수용시설의 성격이 강한 가운데 맹아동과 농아동에게 특수교육도 병행하였다. 이는 학교교육 이전에 수용보호의 성격이 강한 장애인 시설(institute 혹은 asylum)이면서 동시에 초기의 전형적인 기숙제 특수학교의 성격을 지닌 기관이었다. 또한, 제생원 맹아부는 오늘날 서울맹학교와 서울농학교의 전신이어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공적(국립) 특수교육기관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

박두성(朴斗星) 선생은 1905년에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 교사로 일하던 중 1913년에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발령을 받아 일본어 점자교과서 집역 일을 맡았다. 그로부터 박두성 선생은 제생원 맹아부 교사로 22년(1935년까지) 동안 일하면서 특히 점자연구와 그 개발보급에 주력하였다. 일제 식민통치기에 우리나라에서 특수교육을 전개해 오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로는 박두성 선생 외에 1935년에 평양광명맹아학교(平壤光明盲啞學校)를 설립한 이창호(李昌浩) 목사와 1938년에 원산맹학교(元山盲學校)를 설립한 맹인 손용수(孫龍洙)를 들 수 있다. 이창호 목사는 평양에서 Moffett 선교사가 설립한 남자맹인시설을 인수하여 맹아학교(盲啞學校)로 발전 시켰으며, 이는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교육기관에 해당된다(안병준, 1974). 한편, 손용수는 1926년에 제생원 맹부(10회)를 졸업하고 원산에서 안마원을 경영하던 중 1938년 자택에 맹학생들을 모아 교육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원산맹학원의 기원이다. 그러나 원산맹학교는 광복 후 손용수가 일제에 전쟁비용을 헌금했다는 이유로 해고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폐교되고 말았다(대한특수교육학회, 1986).

이 처럼 일제치하에 평양에서 이창호 목사와 원산에서 맹인 손용수가 당시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전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나, 다음 두 측면에서 볼 때 박두성 선생을 그 대표적인 인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박두성 선생은 위 두 사람(이창호 목사와 맹인 손용수)에 비해 훨씬 앞서 제생원 맹아부 개원 당시부터 맹부 교사로 일해 오면서 한글 점자연구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왔다. 그는 1926년에 ‘훈맹정음’(訓盲正音)을 창안하여 공표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맹교육계의 개척자로 칭송을 받고 있다. 박두성 선생은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에 의해 한글 점자연구가 꽤 어려운 상황에서도 1920년에 3.2점식 한글점자연구에 착수

한 이래, 1923년에는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조직하여 6점식 점자체계에 의거하여 한글점자 ‘훈맹정음’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박두성 선생은 조선어점자연구회를 조직한지 3년이 경과한 1926년 8월에 ‘훈맹정음’을 창안하고, 그 해 11월 4일 ‘조선어점자연구회’를 하늘이 내린 육각의 눈꽃이란 뜻으로 ‘육화사’(六花社)로 개칭하고 정식으로 ‘훈맹정음’을 반포하였다. 이은상(李殷相) 선생은 ‘훈맹정음’에 대하여 이 나라 맹인들에게 있어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비길 만하다면서 박두성 선생 추모 3주기에 “점자판 구멍마다 피땀피인 임의 정성 어두운 가슴마다 광명을 던지셨소.”(출처: 송암 박두성 선생 기념관 자료)라는 추모시를 남기기도 했다.

둘째로 박두성 선생은 1935년에 제생원 맹아부 교사를 사직(48세)하고도 평생을 맹인들에게 점자를 익혀 글을 읽고 쓰게 하는 일에 헌신하였다. 박두성 선생은 1940년에 새로 ‘조선맹아사업협회’를 조직하여 한글점자를 익히지 못한 전국의 맹인들을 대상으로 점자통신교육을 실시하였다. 그 무렵 선생은 어린 딸(박정희 여사)이 한 줄씩 성서를 읽어주는 것을 받아 손수 신약성서 점자원판제작에 착수하여 1941년에 어렵게 완성하였다. 이 처럼 박두성 선생은 평생을 ‘애맹’(愛盲)정신으로 살아오면서 한글점자와 점자도서 보급에 헌신하였다. 이에 임안수(2000)는 송암 박두성 선생의 일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세상에 누가 있어 맹인들을 그토록 사랑했는가? 세상에 누가 있어 그 암담했던 시대에 맹인들의 가슴에 등불을 밝혔는가? 이 땅의 맹인들에게는 세월이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스승이 있으니 그가 바로 소암 박두성 선생이다....(중략) 그는 손수 많은 책을 점역하여 전국의 맹인들에게 대출했고, 점자를 모르는 이 나라 방방곡곡의 맹인들에게 통신교육을 통하여 점자를 가르쳤다. 이러한 일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개인이 수행하는 데는 적지 않은 희생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의 삶은 희생과 애맹 정신으로 점철된 참으로 위대한 한 평생이었다.(송암 박두성 선생전기 ‘축사’중에서, 2000)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막상 박두성 선생 자신은 당신의 삶을 아주 소박하게 제자들이 모인 회갑잔치 석상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내가 무슨 대단한 뜻이 있어서 한글점자를 연구한 것이 아니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방을 준다는 말에 제생원에 왔고, 또 맹생을 보자 그들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글점자를 연구한 것뿐이요”(박정희, 2007). 맹교육 교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로 평생을 한결같이 살아온 선생의 삶이 그래서 더욱 돋보인다.

### 넷째, ‘전개기’의 설정과 이영식(李永植) 목사의 선정

윤석중은 ‘해방의 날’이라는 시에서 “서울 장안을 뒤덮은/ 태극기 우리 기,...(중략)/ 소경들이 구경을 나왔다가/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고 해방을 맞는 민족의 환희를 표현

했다. 그러나 해방은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한 밤의 도둑과 같이 찾아와”(함석헌, 1965) 조국 광복은 좌우 이념대립으로 인한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였다. 이런 와중에 대구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한 이영식(李永植) 목사는 조국 광복 기념사업으로 1946년에 대구맹아학교(大邱盲啞學校)를 설립하여 광복 후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특수교육사업에 투신하였다. 광복 직후의 혼란과 6.25 동란이 가져다 준 피해로 인해 국가에서는 장애아동 교육을 엄두도 못 내던 터에 대구에서 이영식 목사가 선구적으로 특수교육사업을 펼친 이래, 인천에서는 정규순(鄭奎淳)이 인천농아학원을 설립(1956)하였으며, 김택용(金擇龍)은 광주에서 전남맹아학교(1957)를 설립하였으며, 서울에서는 최병문(崔秉文)이 한국구화학교(1962)를 설립하였다. 이외에도 옥보을(玉保乙)은 충주성심맹학교(1955)를, 임경삼(林敬三)은 경기맹학교(1956)를, 김주호(金周浩)는 충주성심농아학교(1955)를, 엄병희(嚴秉熙)는 대전맹학교(1953)를, 이철수(李喆洙)는 강원맹학교(1954)를, 김현수(金炫洙)는 전북농아학교(1960)를, 허마리아는 청주맹학교(1952)를, 노재욱(盧在旭)은 대전원명학교(1962)를, 신항일(申恒日)은 군산농화학교(1960)를 각각 설립하였다.

이들은 모두 광복 후에 각 지역에서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온 특수교육(특히 맹교육과 농교육 분야)의 개척자였다. 이들 민간 선각자들 가운데 1960년대 까지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을 주도해 온 대표적 인물로 이영식 목사를 선정한 것은 다음 몇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로, 이영식 목사는 광복 직후에 우리나라에서 민간인으로는 최초로 맹교육과 농교육 중심으로 특수교육사업을 주도함으로써, 분단과 더불어 남북이 단절된 상황에서 광복이전에 Hall 여사와 이창호 목사 등에 의해 평양중심으로 행해진 특수교육의 터전을 광복 이후에는 ‘대구’중심으로 특수교육의 중심을 전환케 하는데 그 선구자가 되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평양은 우리나라 근대 특수교육의 발원지로서 역사적으로 한국 특수교육의 성지(聖地)라 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분단 이후에 그 명맥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채 굴절되고 말았다.

둘째로, 이영식 목사는 대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1946년에 대구맹아학교를 설립하여 민간인으로서 지방에서 최초로 맹교육과 농교육을 개척했을 뿐만 아니라, 1956년에는 이 분야의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이공학원(오늘의 대구대학교 전신)을 설립하여 이것을 모체로 1961년에 4년제 정규대학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특수교육과(당시 한국사회사업대학)를 설치하여 특수교육분야 지도자 양성의 길을 터놓았다. 이 보다 10년 후에 서울에서 이화여자대학(1971)과 단국대학(1971)에서 각각 특수교육과를 설치함으로써 ‘70년대에 와서 전국적으로 특수교사 양성체제가 본격화되기에 이르렀다.

셋째로, 이영식 목사는 1965년에 미국 특수교육계를 시찰하고 돌아와 정신지체아교육과 지체부자유아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1966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독립된 장애영역의 특수학교로 대구보명학교(정신지체특수학교)와 대구보건학교(지체부자유특수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맹교육과 농교육에 이어 정신지체교육과 지체부자유교육에서도 그 선구가 되었다. 그 동안 정신지체아교육은 한국구화학교(청각장애특수학교) 내에 1963년부터 정신박약아 학급을 병설하여 운영해 온 것이 고작이었으며, 지체부자유아교육은 병원 내에서 치료목적으로 연세소아재활원(1959)이 운영되어 왔고 부산에서 중증 지체부자유아를 위한 가정방문제 특수학급을 운영(1963)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독립된 특수학교로 정신지체학교는 대구보명학교가, 지체부자유학교는 대구보건학교가 그 최초의 특수학교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이영식 목사는 초기에 국가 차원에서 특수교육을 진흥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국회의원들에게 특수교육에 대한 계도와 그 입법조치를 자극하기 위해 1949년 11월 12일에 국회본회의장에서 맹학생과 농학생의 학예발표에 이어 즉흥연설로 장애인복지와 특수교육의 필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를 계기로 장애인교육과 복지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제기되어 당시 맹농아 교육기관과 복지시설에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김병하, 2007). 이런 인연으로 이영식은 1955년에 한국맹농아교육기관 연합회장에 피선되고, 1961년에는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의 전신) 초대회장을 맡아 한국 특수교육계 지도자로서 초창기에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진흥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상에서 열거한 이유로 광복 후 초창기(1960년대까지)에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이 경향 각지에 여러 사람 있었지만, 그 대표가 될 만한 사람으로 이영식 목사를 꼽지 않을 수 없다.

### III.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의 인물개관과 그 논평

앞에서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 정립을 위해 시대구분을 태동기, 성립기, 과도기, 전개기로 대별하고 각 시대구분에 해당되는 대표적 인물을 한 사람씩 선정하여 그 선정 기준과 이유를 논의하였다. 이하에서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네 사람(세종대왕, R. S. Hall, 박두성, 이영식)을 시대구분의 순서에 따라 각각 생애사적인 측면에서 개관하고 그들이 특수교육에 미친 영향을 논평하고자 한다.

#### 첫째, 태동기의 세종대왕(1397-1450)

세종대왕(본명 李禎)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지 5년만인 1397년 4월 10일(양력 5월 15일) 태종 이방원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1418년 6월에 세자로 책봉되고 그 해 8월 10일 당년 22세에 국왕의 자리에 올라 즉위 32년만인 1450년(54세) 2월 17일(양력 4월 8일) 승하하였다. 여기서는 전근대사회의 왕권시대에 세종에 의해 특수교육이

‘태동’될 수 있었던 기반에 주목하여 세종의 어문정책을 살펴보고, 이어 세종조에 맹인들에게 점복교육을 실시한 서운관(書雲觀)의 특수교육사적 의의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조선조 개국 26년에 등극한 세종은 신왕조의 제도와 법률 등을 일반백성들에게 두루 전달하기 위해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창제에 착안하였다. 이는 ‘훈민정음 언해본’(訓民正音 諺解本)에서 “訓은 가르칠 씨오, 민은百姓이오, 正音은 正한 소리니 訓民正音은 百姓가라치시는 正한 소리라” 한 것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당시 지배층에서 사용해 온 문자언어로서 한자(漢字)는 우리말의 음성언어 체계와 너무 달라 일반 백성들이 익히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어느 나라의 문자이든 자기민족의 고유한 음성언어에 대응하여 표기할 수 있어야만 문자로서 효용가치를 갖는다. 훈민정음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도록 창안되었던 바, 정인지는 ‘훈민정음 해례’(訓民正音 解例)에서 훈민정음의 정확도와 다양성에 대해 강조하기를 “정음은 바람소리, 학의 울음소리, 닭의 울음소리, 개 짖는 소리까지 모두 표기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강신향, 1984).

정인지는 ‘훈민정음’의 서문에서 (1) 제 말의 소리는 있어도 글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 씀이 아무래도 어거지라는 것, (2) 한문으로는 의사소통이 힘들다는 것, (3) 이두(吏讀) 사용이 불편하다는 것 등을 훈민정음 창제의 이유로 들었다. 이에 세종이 1443년(세종 25년) 겨울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으며, 훈민정음은 간단하여 깨우치기 쉬운 글자이면서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강신향, 1991). 김승곤(1998)은 ‘세종시대의 어문정책’을 논의하면서 훈민정음 첫머리에 ‘國之語音異乎中國’이라 하여, “한문문법에서 보면 ‘A+그림씨+於+B’와 같은 비교 월은 우위 비교월 이라면서, ‘國之語音’이 ‘中國’보다 우위에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여 이 표현구조 하나만 보더라도 세종대왕이 나라말의 소중함을 얼마나 절실히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김승곤, 1998, p. 220).

일찍이 최현배 선생은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1984)을 논의하면서 “겨레 다툼은 말씨 다툼이다.”고 명쾌히 규정하였다. 나아가 권재선(2002)은 ‘한글의 세계화’를 제창하면서 그는 한글의 모든 글자가 발음작용을 본떠 만든 발음작용 문자라는 데 착안하여, ‘세계 음소 한글’, ‘세계 음성 한글’ 등 새로운 세계 한글의 안을 만드는 데 주력하였다. 그는 ‘세계 음성 한글’을 ‘국제 음성 알파벳’에 대신해서 언어연구나 외국어교육에 이용하고, ‘국제 음소 한글’로써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광사업에 활용하여 그 효과를 백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권재선, 2002). 이어 권재선(2002)은 “특수한글을 특수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기하고 있어 주목을 끌게 한다. 그는 특수한글 중 ‘반절’(필자 주: 훈민정음에서 한글의 초성과 중성을 합쳐 음절글자의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을 ‘반절’이라 함)과 권재선의 ‘세계음소한글’(‘그림한글’로 일컫기도 함)을 각각 학습장애아의 문식지도와 청각장애아의 발음지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권재선, 2002).

실제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는 후에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성립과 그 전개에 지대

한 영향을 미쳤던 바, Hall 여사는 1897년에 뉴욕식 한글점자를 처음 고안하여 이듬해에 그녀가 고안한 한글점자로 한글 초학교본을 만들어 평양에서 직접 맹교육(점자지도)을 실천하였고, 이어 서울에서는 박두성 선생이 6점식 한글점자로 ‘훈맹정음’(訓盲正音)을 1926년에 공표하여 그 후 전국적으로 맹인들에게 한글점자를 보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광복 직후 서울맹아학교의 교장을 역임한 윤백원(尹伯元)은 1946년에 한글 지문자(指文字)를 고안하여 공표함으로써, 청각장애학생들을 위한 의사소통 수단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나라 특수교육에서 맹학생들을 위한 특수문자로 한글점자 ‘훈맹정음’이 활용되고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의사소통의 시각적 양식으로 한글 지문자가 보조적으로 활용 될 수 있게 된 것은 원천적으로 세종대왕에 의해 ‘한글’이 창제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더구나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은 한글점자와 한글지문자를 통해서도 국제적으로 두루 인정되고 있다.

조선조 세종대에 와서 우리나라에 특수교육이 태동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논거는 세종 27년(1445) 3월에 “운수를 보는 소경 가운데서 나이 젊고 똑똑한 사람 10명을 뽑아 서운관(書雲觀)에 소속 시킨 다음 훈도 4-5명을 두고 3일에 한 차례씩 모여서 배우도록 할 것이라”(세종실록 제107권 27년 3월 무인일)고 한 것을 보면, 이무렵 맹인에 대한 점복교육을 공식적으로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김정권(1994)에 의하면, 이것은 교육의 시작이라기보다 맹인의 점복교육에 대한 첫 기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임안수(1995)는 세종조에 서운관에서 훈도를 두고 맹인들을 가르친 일에 대해 “세종 27년 서운관에서 십학의 하나로 음양학을 교육하기 이전인 태조 2년에 명과학훈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음양학 교육이 세종 이전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음도 추측할 수 있으나, 그 때는 몇 명의 학생을 교육했다는 기록이 없으므로 세종 27년부터 맹인을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회통에 이르기까지 명과학 생도의 정원이 10명인 것을 보면 맹인들을 위한 교육이 갑오경장(1894) 때까지 약 450여 년 동안 계속 존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임안수, 1995, p. 67). 이것은 전근대사회에서 특수교육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꽤 중요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원래 ‘서운관’(書雲觀)은 고려 말부터 조선 초까지 존속하였던 직제의 하나로, 천변지이(天變地異)를 관측 기록하고 역서를 편찬하며, 절기와 날씨를 측정하고 시간을 관장하던 곳이다. 고려시대 서운관은 천문대로서 개성에 침성대를 가지고 일식과 월식 등을 관찰하였다고 한다(나일성, 1991). 조선 건국 후 서운관은 그대로 계승되어 오던 중 “세종 때는 영의정의 책임 밑에 60인에 달하는 관원들이 많은 업적을 남겼다”(나일성, 1991)고 한 것을 보면, 이때부터 서운관 내에 젊고 똑똑한 맹인들을 따로 모아 점복교육을 실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정조 때의 천문학자 성주덕(成周惠)은 ‘서운관지’(書雲觀志)에서 조선의 천문,

지리, 역법, 시제, 기상관측과 기기 등에 걸쳐 그 발달과정과 제도의 변천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세종 때 서운관에 훈도를 두어 맹인들을 가르친 일과 그 후 그것이 어떻게 존속되어 왔는가에 대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국역 서운관지, 1999). 다만 서운관지 제2권 ‘식례’(式禮)에서 “명과맹(命課盲)은 서반 9품 체아가 둘인데, 4도목(四都目)에 서로 교체하여 제수하고 사만4백(仕滿四百)에 가계(加階)하되 천인(賤人)은 종6품에 그친다.”(국역 서운관지, 1999, p. 102)고 하여 다만 조선조에 명과맹(命課盲)이 존속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맹교육은 재능이 뛰어난 일부 맹인들에게 서운관에서 10학 중 음양학(명과학)을 중심으로 점복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전근대적 왕권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양반계층의 자제들에게 행한 경전(經典) 중심의 정규교육 내용을 장애인들에게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단지 당시에 잡학(雜學)이라 일컬어진 것 중의 하나인 음양학을 중심으로 맹인들에게 점복교육이 행해진 정도였다. 그럼에도 맹인들에 대한 점복교육이 세종 때에 젊고 똑똑한 맹인 10명을 뽑아 서운관에 소속시켜 훈도(정 9품) 4-5명을 두어 3일에 한차례씩 정규교육을 실시케 한 것은 특수교육사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한우(2006)는 그의 군주열전에서 세종에 대해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고 제목을 달고, 부제에서 “집념과 포용의 정치로 실현한 애민과 훈민, 세종을 찾아서”라고 표현했다. 이 책의 서문에서 그는 세종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세종, 그는 바로 조선이다. 세종은 조선의 화신(化身)이다. 조선의 표준을 세운 임금이 바로 세종이다. 우리가 조선시대라고 부를 때 떠올리는 거의 모든 것의 골조를 세운 이가 세종이다. 세종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조선 초기의 실상이 제대로 포착될 리 없고, 나아가 조선 500년에 대한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다. 영조니 정조니 하는 이야기는 조선의 예피고넨, 즉 아류에 관한 모색일 뿐이다(이한우, 2006, p. 6).

아마 세종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꽤 포괄적이면서 설득력이 있다고 본다. 물론 우리나라 특수교육역사에서 볼 때, 세종이 직접 특수교육을 실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종은 그가 주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함으로써, 이것이 기틀이 되어 후에 근대적 특수교육이 성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또 세종이 서운관에서 맹인들에게 직접 점복교육을 지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 같은 교육이 실천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었으며, 그 이래로 조선조에 젊고 유능한 소수의 맹인들에게 음양학(명과학)을 중심으로 점복교육이 행해져 오게 한 점(즉, 명과맹의 존속)에서 세종은 단연코 한국 특수교육을 ‘태동’케 한 대표적 인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 둘째, 성립기의 R. S. Hall(1865-1951)

Rosetta Sherwood Hall(한국명 許乙)은 1865년 9월 19일은 미국 뉴욕 Sullivan County의 Liberty에서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Roosevelt Sherwood와 어머니 Phoebe G. Sherwood의 장녀로 태어났다. 그녀는 1886년에 펜실버니아 여자의과대학(Women's Medical College of Pennsylvania)에 입학하여 수학하던 중 인도 의료선교사인 James M. Thoburn 부인으로부터 인도에 의료선교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이때부터 의료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Sherwood는 1889년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감리교부인봉사회집(Methodist Deaconess Home)에서 운영하는 뉴욕 빈민가의 의료 복지사업에 종사하던 중 캐나다 출신의 William James Hall 의사와 만난 것이 인연이 되어 후에 두 사람은 서울에서 결혼하여 의료선교사로 활동하게 된다.

그녀는 1890년 봄에 감리교 여성해외선교회로부터 우리나라 의료선교사로 임명을 받아 M. Howard 여의사 후임으로 그 해 10월 10일 한국에 도착하게 된다. 그녀가 서울 정동의 보구여관(保救女館)에서 약 3년간 일하는 동안 무려 1만4천명에 달하는 여성 환자를 진료했다. 당시 그녀가 적은 일기와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 당시 조선인 환자들의 질환으로는 연주창, 매독, 회충, 눈병, 궂병, 피부병 등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S. Hall, 1978). 1891년 6월 27일 William Hall과 서울에서 처음으로 서양식 결혼을 올렸으며, 후에 남편이 평양에서 일하게 됨에 따라 1894년 5월 초에 서울의 부인 시료소에서 함께 일하던 Esther 박(朴)과 그 남편 박유산을 데리고 남편이 있는 평양으로 갔다. 평양에 한 달 남짓 머무는 동안 Hall 여사는 남편이 전도하여 입교한 첫 신자인 오석형(吳錫亨) 씨에게 봉래라는 맹인 딸이 있었는데, 이 맹여아에 대해 Hall 여사가 관심을 가지고 개별지도를 한 것에 대해 아들 Sherwood Hall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평양에서 William J. Hall의 첫 신자가 된 오석형 씨에게는 어린 맹인 딸이 있었다. 당시에 어머니를 찾아오는 환자들 가운데는 맹인과 농인도 있어 진작부터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 어머니는 궁리해오던 터였다. ...(중략) 어머니는 오씨의 만딸이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제는 내가 일을 시작할 기회가 왔다. 그녀의 아버지는 기독교인이니까 나의 동기를 오해하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일기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어린 봉래를 가르치기 위해 기름을 먹인 조선종이에 구멍을 뚫어 점을 찍는 한 방법을 고안해 냈다.”

봉래는 아주 열심인데다가 총명해서 좋은 반응을 보였으므로 어머니는 맹인을 가르치기 위한 적절한 방법만 잘 적용하면 그녀에게 읽기를 배우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머니는 그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맹인은 쓸모없다는 세간의 잘못된 편견에서 깨어나게 하는 한 방도가 되리라고 믿었다(S. Hall, 1978, pp. 144-145).

여기서 중요한 것은 Hall 여사가 맹여아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기름을 먹인 조선종이에 구멍을 뚫어 점을 찍는 한 방법을 고안하여” 개별지도를 시도했으며, 그 방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공부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이다. 당시에 Hall 여사가 한 맹소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작한 것에 대해 ‘Korea Mission Field’(1908)에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중략) 한국의 맹여아들에게 행복을 안겨주고 기독교 가정의 유용한 성원이 되게 하기 위해 Rosetta S. Hall 여사는 맹교육을 시작하였다. 홀 여사는 소녀시절에 취미삼아 ‘뉴욕식 점자’ 사용법을 배운 적이 있었다. 그녀가 한국에 선교사로 와서 어릴 적에 우연히 익혀 둔 지식이 아주 유용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1894년 이른 봄부터 한 교인의 딸인 맹여아를 가르치기 시작하였으나, 그 해에 그녀의 남편이 사망하자 미국으로 귀국했다.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홀 여사는 뉴욕에 있는 맹학교(Institution for the Blind)를 방문하여 점자체제를 다시 배웠다. 1897년에 한국에 돌아오자 그녀는 이 점자체제를 한글 철자와 음절에 맞춰 적용하여 기도와서와 십계명의 일부를 점역하여 1894년에 가르치기 시작했던 그 여아에게 가르쳐 주었다(L. George Paik, 1927, pp. 324-325에서 재인용).

이상을 종합해 보면 Hall 여사가 1894년에 맹여아 봉래에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개별지도)을 시작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 후 그녀가 ‘다시’ 뉴욕점자 체제를 익혀 스스로 뉴욕식 한글점자를 고안하여 봉래에게 체계적으로 점자지도를 시작한 것은 1898년이 확실하다. 위와 같은 연유로 해서 전술한 것처럼 자료에 따라 Hall 여사가 평양에서 맹교육을 시작한 연대가 1894년과 1898년으로 각각 다르게 보고되고 있다. 임안수(2005)가 종합적으로 밝힌 것처럼 후에 공식 보고에는 1898년으로 보고된 것이 지배적인데, 그것은 Hall 여사가 뉴욕식 한글점자를 적용하여 체계적으로 점자지도를 시작한 것이 이 때부터였기 때문에 설득력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로 학교교육으로 맹교육이 특수학급 형태로 처음 시작된 것은 1900년 신학기부터였으며, Hall 여사가 평양에서 맹소녀를 처음 만나 사적으로 개별지도를 시작한 것은 1894년이 확실하다.

그 후 맹교육이 자리를 잡아 감에 따라 Hall 여사는 한국인 이익민과 동료 선교사 Rockwell의 도움으로 1909년에는 농교육도 시작하게 되어 이때부터 Hall의 특수교육 사업은 평양 맹아학교(盲啞學校; Blind & Deaf School)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Hall 여사는 우리나라 근대 특수교육 ‘성립’의 개척자가 되었으며, 그녀의 이와 같은 특수교육 사업은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게 되어 1914년에는 ‘제1회 동양맹아교육회의’가 일본, 중국, 한국의 특수교육자들이 모인 가운데 평양맹아학교에서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성대히 개최되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통합교육의 실천 경험을 비롯해서 Hall 여사의 특수교육에 대한 노력과 그 성과가 높이 평가되었다고 한다(안병준, 1974, 1995).

그 후 1925년에 H. P. Robbins가 평양맹아학교 2대 교장(1925년에서 1935년까지)으

로 부임한 후, Hall 여사는 1928년 서울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조선여자의학교를 설립하여 여성들에게 의학교육을 실시하였다. 1933년 3월 2일 43년간 의료선교사로 일해 온 조선을 떠나, 귀국 후에도 한국의 결핵환자들을 돕는 일에 열중하다가 1943년 뉴저지 오션 그로브에 소재한 Bancrift-Taylor 양로원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던 중 1951년 4월 5일 86세에 소천하고 후에 서울 한강변 양화진 외국인 묘역에 남편 William James Hall 옆에 안치되었다. 그녀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미국여성 200인 중 한 사람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막상 평생을 바쳐 일한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경의도 표한 적이 없다. 다만 그녀의 외아들 Sherwood Hall 의사에게는 1984년 보건복지부에서 결핵퇴치사업의 공로로 훈장을 수여하였다.

거시적으로 볼 때, 사회과학 측면에서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이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은 빛과 그림자가 함께 존재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역사의 측면에서 Hall 여사가 근대 한국 특수교육의 성립 과정에 미친 영향은 높이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당초에 의료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기 때문에 여성의료분야에서 그 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막상 그녀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교육사업은 상대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한 인물의 전체적 활동상을 놓고 볼 때, Hall 여사는 일차적으로 의사이자 의료선교사였지 특수교육자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97년에 그녀가 뉴욕식 한글점자를 손수 고안하여 이듬해에 맹여아 봉래에게 직접 점자지도를 실시한 점에서 그는 근대 한국 특수교육의 개척자임에 틀림없다. 그 후(1898-1924)부터 그녀는 평양에서 맹교육과 농교육의 관리자로서 직분을 맡아 오는 가운데, 당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개척자이자 리더로서 높이 평가되지 않을 수 없다.

### 셋째, 과도기의 박두성(朴斗星: 1888-1963)

박두성은 1888년 4월 26일(음력 3월 16일) 경기도 강화군 상용면 교동리에서 박기만 씨의 6남 3녀 중 맏이로 출생하였다. 어려서는 서당에서 한문을 익히던 중 1895년에 이동휘(李東揮)가 강화도에 설립한 보창학교에 입학하여 4년간 신학문을 수학하고, 이어 1905년에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어의동보통학교(현 효계초등학교 전신) 교사로 임용되어 8년간 근무하였다. 1913년 조선총독부산하에 제생원(濟生院) 맹아부(盲啞部)가 설립되면서 그는 맹부(盲部) 교사로 자리를 옮겼다. 후일 박두성이 회갑연 잔치석상에서 보통학교 교사에서 맹아부 교사로 자리를 옮긴 내막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내가 구남매의 맏아들이다 보니까 동생들이 줄줄이 셋방살이하는 내게 와 있었던 게지. ...(중략)조선총독부 제생원 맹아부라는 이름으로 앞 못 보는 사람들과 말 못하는 사람들을 한 울타리에 모아 놓고 공부를 시키기로 했는데, 여기 취직하는 사람은 '보통훈도 월급'을 급수에 따라 차등해서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생활할 수 있는 방을 준다는 광고가 나붙었는데 그 방을 준다는 말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그래서 취직을 해간 게 맹학교였단 말이지. 그런데 맹학교에 가서 진짜 눈감은 제자들을 만나자 내가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든 거요. 스물여섯 살에 앞 못 보는 식구를 만났는데, 그 날부터 나는 나이도 잊고 인생관이 백팔십도 변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서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농토 많이 만들어 드리고 잘 사시게 할까’하는 생각은 없어지고, “이 눈감은 식구들을 어찌 살게 해줄까? 어떻게 기쁨을 줄까? 하나님 뜻이 어디 계셔서 이 사람들은 눈을 감았나?” 이런 고민을 하며 침식을 잊고 살다보니 이제 육십이 됐네요(박정희, 2007, pp.4-5).

이처럼 처음에 박두성 선생은 호구지책으로 방을 내준다는 말이 솔깃하여 제생원에 발을 들여 놓았으나, 막상 맹인들을 접하자 완전히 생각이 바뀌게 되어 그들이 굶지 않고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한글점자를 연구하게 되었고, 이로부터 평생을 ‘애맹’(愛盲)정신으로 일관되게 살아왔다. 선생은 제생원에서 일본어 점자로 교육을 하던 중 1920년 이시카와(石川)가 일본 가나점자를 창안한지 30주년을 기념하는 때에 “앞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조선 맹인이 일본점자로 교육 받는 것”을 한탄하면서 시름에 빠졌다.

1920년에 박두성 선생은 본격적으로 한글점자 연구에 착수하면서 점자창안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한글 창제의 원리부터 알 필요가 있어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과정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그 해 12월에 한글 초성(자음) 14자를 3점 점자로 옮기는데 성공했다. 그 후 다시 중성(모음)의 연구에 착수하여 한글의 중성 10자를 2점식 점자로 바꾸는데 성공하니, 이것이 소위 초기의 3.2식 점자이다(이완우, 2002). 초기의 이 3.2점자는 초성과 중성만으로 구성되어 받침, 즉 종성도 초성과 같은 점자기호를 갖다 붙이고 나면, 중성과 종성이 혼돈되어 오독하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대응한 송암(松庵) 박두성 선생의 후속된 점자개발 사업을 이완우(2002)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이에 송암은 다시 시련에 부닥쳐, 또 다시 한글의 원리와 세종대왕 한글 창제 당시의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기 시작 했다. 무엇보다 세종대왕이 성삼문 등 8명으로 언문청을 두었다는 데 깊은 관심을 표명, 이를 본 때 1923년 4월 송암이 손수 키운 당시 재경 제생원 졸업생 유도윤, 이종덕(후에 서울맹학교 교장), 노학우, 전태환(후에 한국맹인복지협회장), 이종화, 황이채, 김영규, 김황봉 등 8명을 규합하여 조선어점자연구위원회를 비밀리에 결성하였다(이완우, 2002, pp.19).

당시는 일제의 조선어 말살정책이 심하였기에 이 일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송암은 “세종대왕이 한글창제를 위해 명나라의 한림학사 황찬에게 음운에 관한 문의를 하기 위해 성삼문으로 하여금 열세번이나 중국을 왕래케 했다는 데 크게 느낀 바 있어, 외국 점자의 기원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루이 브라유의 6점식 점자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이완우, 2002, p. 20). 이리하여 1923년 4월에 한글점자를 연구한지 3년 4개월만인 8월에 드디어 한글점자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그 후 겨우 조

선충독부의 승인을 얻어 그 해(1926) 한글날에 맞추어 11월 4일 ‘훈맹정음’(訓盲正音)이라 명명하여 세상에 공표하였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당시에 평양에서는 전술한 것처럼 진작부터 Hall 여사가 고안한 뉴욕식 4점 한글점자가 통용되어 온 반면에 서울에서는 박두성 선생이 고안한 6점식 브라우 한글점자가 적용되어 한 나라에서 소위 평양점자와 서울점자가 서로 달랐다. 박두성 선생의 유고인 ‘훈맹정음의 유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상히 전해주고 있다.

나는 평양맹학원에 대하여, 또는 홀 부인에게 대하여 한국어 점자방식을 브라이유식으로 고치게 하자고 제의하고 이해득실을 갖추어 충분히 설명하여도 용이하게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나중에는 홀 부인이 일본말도 뉴욕 식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조선식 일본 점자 안까지 만들어 보내면서 반대 주장을 하여 왔다. 나는 이 문제가 합의될 성질의 것이 아닌 것을 인정하고 우리 학생들과 일반 맹인들을 동원하여 연구하기로 작정했다(김병하, 2003, p.187에서 재인용).

박두성 선생은 당시 세계적으로 6점자를 쓰기로 이미 맹인 계에서는 합의가 된 사항임을 알고 홀 여사에게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홀 여사는 오히려 일본말조차도 뉴욕 식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는 안까지 역으로 제안해 옴에 따라 이 문제는 서로 합의해서 해결될 성질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신하고 자신의 구상에 따라 한글점자 창제를 추진하였다.

그 후 박두성 선생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제생원 맹아부장 대리로서 취임(1931)하였고, 이 무렵 전국의 맹인들에게 통신교육 형식으로 점자를 보급하기 시작했는데, 김천년(후에 서울맹학교 교감 역임)은 송암의 점자 통신교육을 받은 수제자가 되었다(이완우, 2002). 또 이 무렵 송암은 신약성서 한글점역을 위해 점자 아연판 제판에 착수하였는데, 당시 상황을 이완우(2002)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국어가 폐지된 다음부터는 일제 관원들의 눈을 피해 밤에만 마치 치과의사의 반사경과 같은 띠가 달린 에디슨 핸드란을 이마에 붙이고 아연판에 구멍을 뚫기 시작했다. 당시 8살 난 큰딸 정희(현재 86세)가 성경책을 들고,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하고 낭랑한 목소리로 읽으면, 아버지는 이를 받아 광광 제판기를 밟으면서 되뇌었다. “그 다음”하고 아버지가 재촉하면 딸은 또 “가라사대” 하면서 부녀의 선창과 후창은 아연판과 어둠을 뚫고 나갔다. 어찌다가 줄을 거르더라도 하면, “아이구, 그 놈의 자식, 어떻게 한담? 쫓쫓” 혀를 차면서 아연판을 뽑아 정과 장도리로 쨍쨍 소리 나게 두드려 지운 후에 다시 찍곤 했다(이완우, 2002, pp. 35-36).

그런데 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송암이 이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이 일

을 도운 송암의 딸 박정희 여사는 당시에 겪은 고통 때문에 후일 송암을 ‘의붓아버지’처럼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서러움을 술회하고 있다.

아버지는 사활을 건 작업을 하셨고 나는 마지못해 읽는 일로 삼으니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그도 더한 것이, 좀 큰 성경으로 읽으면 내가 교과서 읽는 것만큼 떠들대면서라도 읽었을 텐데. 쪽 복음(권별로 분리된 휴대용 작은 성경) 그 손바닥만한 것, 그걸로 읽으라 하니 조그만 아이가 내려 쓴 깨알 글을 어찌 따박 따박 읽어 댈 수 있느냐는 말이다. ...(중략) 행을 바꿔 읽어야 할 텐데 다시 그 줄을 읽거나 그 다음 줄을 건너 뛰어 읽거나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야 이놈아 어디 그 말이 되니, 다시 읽어봐라” 이리시게 일쑤였고, 틀린 것을 몰라 모르고 넘어가다 다 찍은 아연판을 새것으로 갈아 끼우기 전에 다시 읽어 내려가면서 검사를 하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그러면 그 아연판을 집어들어서 날 그냥 패는 거였다. ...(중략) 그걸로 8살 어린이가 맞으니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다(박정희, 2007, pp.7-8).

그런 쓰라린 추억 때문에 지금도 여사는 성경책을 들기가 싫다고 할 정도이다. 그러나 박정희 여사는 아버지를 누구 보다 존경했고 송암 또한 딸의 배필을 고를 때 직접 나서서 주선하고 알아 볼 정도로 딸에게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다. 송암의 임종 시에도 여사는 가족 가운데 끝까지 아버지 손목을 잡고 자리를 지켰다. 송암의 사후에 박두성 선생 전기를 쓰고자 한 사람(박병재의 ‘훈맹정음 창안자 박두성’, 1985)은 거의 전적으로 여사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사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송암의 제자인 이상진을 찾아가서 “어떻게 저 청각장애인 박병재 선생이 쓴 박두성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읽게 합니까! 아버지의 각별한 제자 이상진 선생 당신이 써야 하는 게 아니요?”(박정희, 2007) 라고 강권하여 이상진 선생이 쓴 ‘송암 박두성전기’(송암기념사업회, 2001)가 뒤늦게 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고초를 겪으면서 1년 5개월이 걸려 1932년 9월에 마침내 ‘마태복음’이 점역본 88장으로 완성되고, 이어 ‘누가복음’ 점역에 착수하던 중 누가복음 16장 10절을 끝으로 급기야 송암은 시력을 잃게 되었다. 점자 창안 당시 잠정실명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에는 결막염으로 실명 위기에 이르렀다(이완우, 2002). 송암은 신약성서 점자원판 제작을 1941년(54세)에 겨우 완성하였으나, 안타깝게도 6.25 동란 때 성서 공회 화재로 소실되자, 전후에 다시 이 일에 착수하여 1957년 말에 신구약성서 전24권의 점역을 완성(70세)하였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63년 8월 25일 76세로 송암은 서거하였다. 송암 서거 3주기에 노산 이은상이 지은 추모 시는 신교동 국립서울맹학교 교정 추모비에 다음과 같이 새겨져 있다.

점자판 구멍마다 피땀피인 임의 정성

어두운 가슴마다 광명을 던지셨소.  
 이아침 천국에서도 같이 웃으리라.  
 남의 불행 건지려고 자기 행복 버리신 입  
 한숨을 돌이켜서 입마다 노래 소리  
 그 공덕 잊으리까 영원한 칭송 받으소서

필자가 보기에 우리나라 특수교육역사상 송암 박두성 선생만큼 맹교육에 미친 실질적 영향 면에서 뿐만 아니라 ‘애맹’(愛盲)정신으로 일관되게 살아온 사람을 선뜻 내세우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송암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기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내에 송암 박두성기념관을 개관(1999)하여 선생의 흉상을 건립하고 유품을 전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에서는 2002년 4월의 문화인물로 박두성 선생을 선정하기도 했다. 송암은 1926년부터 1946년까지 자신의 맹인사업 관련기록을 일지(日誌) 형식으로 남겨 놓았는데, 송암의 맹인사업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제인가 임안수 교수(서울맹학교 출신, 대구대 특수교육과 명예교수)가 당시 박두성 선생 같은 분들이 실제로 맹학생들의 교과지도 실력 면에서는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필자에게 전언해 주던 기억이 난다. 그것은 초창기에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초등과정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공식적인 학력의 전부였기에 지금의 기준으로 볼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 넷째, 전개기의 이영식(李永植: 1894-1981)

광복 후 격심한 혼란기에 성산(星山) 이영식(李永植; 1894-1981)은 대구에서 조국 광복의 기념사업으로 1946년 4월 19일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을 위해 대구맹아학원을 설립하였다. 이영식은 한반도에 청일전쟁이 휩쓸고 간 7개월 뒤인 1894년 12월 13일 경북 성주군 금수면에서 아버지 이순구와 어머니 김덕희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가 다섯 살 때 가난을 유산으로 남긴 채 아버지는 타계하였다. 그 후 그의 어머니는 찢어지는 가난 속에 설명하여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으나, 기독교에 입문하여 다시 기적같이 시력을 회복하게 되면서 이영식은 어릴 때 다니던 서당을 그만두고 1908년 9월에 성주 대가면 옥화동의 기독교 소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1913년 4월에 소학교를 졸업하고 대구계성중학교에 입학하여 근로 장학생으로 어렵게 수학하였다. 1919년 독립운동에 참여한 죄목으로 이영식은 서울과 대구 형무소에서 약 3년간 복역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1922년 7월에 형무소를 출옥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에 이듬해 3월에 일본 코베(神戸)신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1927년 3월에 대구서문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한 후, 그 해 11월 10일에 대구신명여학교 제10회 졸업생인 박두순과 결혼하였다. 1929년 제도권 내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문으로 고민하던 끝에 대구 서문교회를 물러나고 나환자촌의 교회인 대구에락원 나환자 교회에 부임하여 나환자들이

소록도로 집단이주 하기까지 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 후 1938년 1월에 함경북도 성진중앙교회 목사로 사역 하던 중에 1941년 9월에 만주국 간도성 명월구 제1교회로 옮겨 시무하였다. 1943년 일본으로 건너가 요코하마 시에서 한국인 교회 목사로 시무하던 중 그해 12월 26일 어머니 김덕희(金德喜)여사가 향년 77 세로 별세하였다.

일본의 패망이 가까워 옴을 예견하고 이영식은 1945년 5월 25일 가족과 함께 귀국하여 마침내 조국광복을 맞이하고, 그해 9월에 대구 애생원(愛生院) 나환자교회에 설립 목사로 시무하던 중에 그는 다시 광복기념 사업으로 뭔가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찾아 나섰다.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고, 장사는 상인에게 맡기고, 하느님의 사도로서 ‘사랑’을 일으키는 일을 하기 위해 그는 1946년 4월 19일 대구시 서성로에 소재하는 중앙교회의 지하실을 빌려 맹아동과 농아동을 교육하는 ‘대구맹아학원’을 설립하였다. 대구맹아학원의 설립동기를 『영광학원 50년사』(1998)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역사적 흐름에서 볼 때 기독교의 실천적 신앙인으로서 이영식 목사는 이(특수교육) 사업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이영식 목사의 모친이 한 때 실명했던 일이나 삼일운동을 하다 투옥되었을 때 옥중에서 농인과의 만남 등은 ‘맹아학교’ 설립의지를 더욱 강화시켜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이영식 목사의 독립운동 참가, 민족해방을 계기로 한 새로운 사회봉사 활동의 모색, 기독교 신앙에 따른 개인적 요인과 오래 전부터 있어온 대구지역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맹아학교 설립의 움직임, 대구지역에 전무했던 맹아학교 설립에 대한 지역적 요구 등의 외적 요인들이 동기가 되었다(영광학원 50년사, 1998, p. 11).

이처럼 기독교적 박애정신의 실천이 직접적 동기가 되어 이영식은 “친구로부터 빌린 돈 2천원을 밑천으로 삼아 1기생으로 12명의 원생을 수용하여”(이영식, 1984, 1998) 대구맹아학원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들을 한곳에 정착시켜 특수교육을 실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 1947년 12월에는 대구맹아학원생들의 작품전을 미공보원에서 개최하여 시민들의 환심을 받았으며, 이듬해에는 경상북도 전역을 순회하면서 맹학생과 농학생의 학예발표회를 가져 도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무렵 이영식은 맹인과 농인에 대한 일반의 이해와 교육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특수교육을 계도하여 입법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맹학생의 점자읽기, 주산경기, 농학생들의 수화 애국가 제창 등 학예발표회를 실현시키기 위해 1949년 11월 7일 국회의장(신익희) 앞으로 간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간청서는 당시 국회의원 박순석(朴順碩), 정우일(丁又一), 권병노(權柄魯) 세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11월 12일 본회의장에서 맹농아 학생들의 학예발표회가 있었고, 이영식의 증흥연설이 행해지게 되어, 이를 계기로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문제가 국가적 관심

사로 제기되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김병하, 2007). 당시 이영식의 국회연설과 장애학생들의 학예발표회가 국회의원들에게 미친 영향을 이영식의 자서전에 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그날 연설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우리 일행을 불러들인 국회의장(신익희)은 “이것은 우리 의원들의 주머니돈을 모은 것입니다. 적으나마 장애자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며 5만6천환이나 되는 대금을 건네주던 감격적인 순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나의 ‘국회연설’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 맹학교, 농학교 등이 차례로 그 설립을 보게 되었다(이영식, 1998, pp. 168-169).

1949년 11월에 이영식이 국회본회의장에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지원을 역설한 때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1977년 말에야 비로소 ‘특수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에 이영식 목사가 맹·농학생들을 직접 대동하여 국회본회의장에서 즉흥연설을 하고, 학예발표회를 시연해 보인 것은 장애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이후 특수교육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대구맹아원은 1950년 6월 초등과 제1회 졸업생을 배출한지 얼마 후에 6·25동란으로 말미암아 무기 휴교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와중에 이영식은 인민군에 연행되어 대구형무소 교무과장이자 목사라는 신분이 판명되어 ‘고등스파이’라는 죄명으로 사형 집행장까지 끌려갔으나, 그가 맹농아 교육자이자 나환자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밝혀져 총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전란과 더불어 대구맹아학원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건물이 군현병대 주둔지로 징발되어 1951년 2월에 태평로 소재 가옥을 대구시로부터 새로 임대받아 임시로 수업을 하였다. 이런 난관 속에서도 대구맹아학원의 학제가 중등과로 확대·개편되어 1951년 4월에 중등과를 설치하여 학생모집을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1953년 3월 19일 공동묘지 터에 역사적인 원사(院舍) 신축 기공식을 하고, 그해 11월에 대명동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원사(院舍)인 기숙사를 먼저 짓고 이어 1954년 12월 11일 대구맹아학원 교사(校舍) 건물이 완성됨으로써, 비로소 기숙사와 교사가 완비된 특수학교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이어 1955년 4월에는 대구맹아학원 고등과를 설치하여 초·중·고등부 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 무렵 이사회(1955. 4. 16)에서는 대구맹아학원을 학원체제에서 정규학교체제로 승격시키기로 하고, 학교체제에 따른 직제개편을 대폭 단행했다. 이처럼 1946년에 민간인에 의해 최초로 대구맹아학원이 설립된 이래 1955년에 와서야 비로소 독립된 특수학교로 부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초등부에서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12년제의 학제를 갖춘 정규학교 체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김병하, 2007). 그간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민간 독지가의 노력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한다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힘겨운 일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946년에 대구맹아학원을 설립한 것이 인연이 되어 이영식은 1955년 한국 맹아교육기관 연합회장에 피선되고, 1961년에는 한국특수교육연구협회(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의 전신) 초대회장 직을 맡아 초창기에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구맹아학원 설립 10주년이 되는 1956년 2월에 일본에 유학 중이던 장남 이태영(李泰榮; 1929-1995)이 귀국함으로써, 특수학교로서 대구맹아학교의 발전은 물론, 대학설립을 통해 특수교육분야 지도자를 길러 내는 일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이무렵 대구맹아학원 이사회(1956년 4월 1일)에서는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 한국특수교육재단을 구성하여 고등교육까지 실시하기로 계획을 세워 ‘한국이공학원’ 설립을 결정하였다. 이것이 모체가 되어 1957년에는 한국사회사업학교로 발전하였으며, 1960년 4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였는데, 이 때 특수학교 교사양성과정 1년을 수료한 26명도 처음 배출되었다(김병하, 2007). 이를 바탕으로 천신만고 끝에 1961년 마침내 4년제 정규대학으로 한국사회사업대학이 설립(초대학장: 이영식)되고 단설학과로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사회전공과 과학전공으로 나누어 중등특수교사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대학 수준의 특수교사를 양성하기에 이르렀다.

전술한 것처럼 이영식은 광복 후 맹교육과 농교육을 주도한 이래, 정신지체아교육과 지체부자유아교육에도 관심을 보여 장애별 단설 특수학교로는 처음으로 1966년에 대구보명학교(정신지체 특수학교)와 대구보건학교(지체부자유 특수학교)를 각각 설립하였다. 이로써 이영식은 광복 이후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전개과정에서 맹교육과 농교육뿐만 아니라 이 분야의 지도자양성에도 개척자적인 역할을 했으며, 후에 정신지체아교육과 지체부자유아교육에도 새로운 지평을 열어 놓았다. 이영식 목사의 이 같은 특수교육 사업에 영향을 받아 대구는 광복 후 한국 특수교육의 메카가 되었다. 말년에 이영식은 사이판 티니안에서 해외희생동포 유골 봉환사업과 그 2세들에 대한 후원사업에 열중한 중 1981년 12월 8일 사이판도에서 소천(召天)하였다.

평소에 이영식 목사는 그가 일으킨 특수교육사업에 대해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라 했고, “안되다가도 되는 것이 인생”이라 했다. 그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일에 대한 개척정신이 유별나게 강했으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함으로써 안 되는 일도 되는 쪽으로 만들어 냈다. 이 처럼 광복 후 한국 특수교육은 민간선각자들의 끈질긴 노력에 의해 경향 각지에서 주도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일반아동 교육이 공교육으로서 그 기초를 다지기까지 특수교육은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 우선순위에서 늘 밀려났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소위 ‘시기상조론’(時期尙早論)에 밀려 정책적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특수학교 하나 지을 돈이 있으면 탱크 한두 대 더 만들어야 한다”(김동극 회고담, 2004)는 것이 당시 정책입안자나 관리들의 원칙이자 논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영식이 앞장서 일반인들을 계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면서 특수교육을 전개해 오던 중 1977년 말에 마침내 특수교육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는데, 당시 특수교육협회장으로서 이 일을 앞

장서 추진해 온 김동극은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을 저 혼자 앞장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부터 제일 공로가 많고 제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고 체찍질하신 분이 이태영 총장입니다. 그리고 이영식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을 들 수 있습니다(김동극 회고담, 2004. 11. 15).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해 당시에 이태영(이영식의 장남) 한국사회사업대학 학장이 적극 지원하는 가운데, 이영식 목사가 이효상 국회의장을 직접 만남으로서 이 일을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이영식은 광복 후 한국 특수교육의 파이오니어로서 구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역할은 부전자전(父傳子傳) 격으로 이태영을 통해 발전적으로 이어져 왔다. 목사로서 이영식의 삶은 다소 파격적인 면이 있었지만, 그가 삶의 지표로 설정한 “사랑, 빛, 자유” 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추구되어야 할 인류 보편의 이상세계이다. 그는 이 땅에 사랑, 빛, 자유를 구현하고자 광복 직후 격심한 혼란기에 장애인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보인 이 나라 특수교육의 선구자였다. 특히, 말년에 그가 사이판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강제 징용된 한국인 유해를 봉환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그 곳에서 생을 마감한 것은 그가 살아생전 강조해온 ‘인광주의’(人光主義)의 극명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필자는 인물중심의 한국 특수교육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세종대왕, R. S. Hall, 박두성, 이영식 등 네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적 고찰을 하였다. 인물중심으로 우리나라 특수교육역사를 정립하기 위해 과연 위 네 사람의 선정이 합당한 것인지, 또 이영식 이후에 인물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상당한 논란의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 IV. 결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에 대신하여

본 연구는 인물중심으로 한국 특수교육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 작업이자 문제제기이다.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가 제대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본 연구를 토대로 적어도 다음 세 측면에서 후속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로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으로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 정립의 일환으로 그 시대구분을 태동기, 성립기, 과도기, 전개기로 설정하고 각 시기마다 대표적 인물로 세종대왕, R. S. Hall, 박두성, 이영식 등 네 사람으로 한정하여 다루었다. 설사 이들이 각 시대구분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들을 도와 일한 사람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풍부하게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조선조 군왕으로서 세종의 경우는 말할 나위도 없

고, Hall 여사만 하더라도 뉴욕식 한글점자를 고안하여 처음에 교재를 제작하고 봉래를 직접 지도한 것 외에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특수교육을 실천해 왔고, 이영식의 경우도 초기에 대구맹아학원을 설립하여 주도적으로 특수교육을 실천해 왔지만 맹인 박영생(朴永生)의 도움이 컸고, 후에 특수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설립과 그 후 정신지체아교육과 지체부자유아교육 실천과정에서는 장남 이태영(李泰榮)의 절대적인 지원은 물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에 비해 박두성 선생은 본인이 직접 주도하여 한글점자를 창안하고 신약성서 점역사업과 점자통신교육을 평생에 걸쳐 실천해 온 사람으로서 돋보이는 면이 있으나, 그 역시 이런 일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의 도움이 없이는 그런 일의 수행이 불가능 했다. 이런 측면에서 이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한 주변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폭넓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세종대왕, R. S. Hall 여사, 송암 박두성 선생, 성산 이영식 목사 등에 대한 개별 인물의 전기적(傳記的) 평전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면서 그 속에서 특수교육사적(特殊教育史的) 조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세종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풍부하나, 특히 R. S. Hall 여사의 경우 껍 아쉬운 과제로 남아 있다. 박두성과 이영식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리된 전기물이 있으나, 깊이 있는 개인 인물 평전(評傳) 연구와 더불어 특수교육사적 논의는 여전히 하나의 과제로 남아 있다.

끝으로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 연구가 세계 속의 한국 특수교육으로 그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 국제비교사적(國際比較史的)인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다룬 네 사람의 특수교육 업적이 논의 될 필요가 있다. 중세 왕권시대에 군왕에 의해 모국어의 음성언어에 대응하여 문자언어가 창제되고 이것이 후에 장애인의 특수교육을 위한 특수문자로 활용된 것, 그리고 15세기에 국왕의 명에 의하여 젊고 유능한 맹인을 선발하여 이들에게 정규교육을 실천한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사례(史例)에 해당된다. 19세기 말 프로테스탄트 선교사의 도래와 그들에 의해 근대 신교육과 더불어 특수교육이 성립된 것은 뒤늦게 서양문물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개화를 향한 우리나라의 독특한 사정에 연유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적 식민통치하에 나라와 나라 말을 빼앗긴 상황에서 나라 글을 지키면서 한글점자를 창안한 것은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와 비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또한, 광복 후 자주독립국가로 새로 출범하면서도 국가 차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전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 선각자들이 앞장서 이 나라 특수교육의 발전기반을 다진 것 또한 특이하다. 이런 역사성에 대한 국제비교사적 논의를 통해 세계 속의 한국 특수교육 정체성이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적어도 위에서 논의한 세 측면의 연구가 즐기 있게 이루어 질 때, 인물중심 한국 특수교육역사가 당당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신항(1984). **훈민정음연구**.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권재선(2002). **한글의 세계화**. 대구: 우골담.
- 권재선(2002). 특수한글을 특수교육에 활용하는 방안.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3(4), 171-181.
- 김동국(2004). **특수교육진흥법 제정배경에 대한 회고담**. 2004. 11. 15.
- 김병하(1977).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김병하(1986).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여사에 의한 한국 특수교육의 성립사고. **특수교육학회지**. 7(1). 5-27.
- 김병하(2003). **특수교육의 역사와 철학**.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병하(2007). **대구특수교육사**.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 김승곤(1998). “세종시대의 어문정책”. **세종문화사대계(1)**.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303.
- 김정권(1994). “한국 특수교육 100년의 역사적 의미”. **한국 특수교육 100주년기념 학술대회**. 대한 특수교육학회 연차학술대회, 111-128.
- 김정권, 김병하(2002). **사진으로 보는 한국 특수교육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나일성(1991). “서운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1)**. 797.
- 대한특수교육학회(편)(1995). **한국 특수교육 100년사**. 서울: 도서출판 특수교육.
- 대한특수교육학회(편)(1986). **특수교육 용어사전**.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 박정희(2007). **내 아버지 박두성**.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 송암점자도서관.
- 백낙준(1973). **한국 개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고전국역편집위원회(1999). **국역 서운관지**.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안병준(1974). 한국 특수교육의 발달과정에 관한 일 연구(미간행). 한국사회사업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태윤(1968). “한국 특수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일 연구”. **한국사회사업대학 논문집 제1집**, 75-93.
- 영광학원50년사 편찬위원회(1998). **영광학원 50년사**. 영광학원50년사 편찬위원회.
- 이문수(1987). 조선 세종조의 복지정책 연구(미간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상진(2000). **송암 박두성 전기**. 송암기념사업회.
- 이석진(2005). 한국 특수교육정책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미간행).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식(1998). 고은애 옮김. **사랑, 빛, 자유**. 서울: 도서출판 창과.
- 이태영(1984). **사회복지와 특수교육**. 경북: 대구대학교출판부.
- 이한우(2006). **세종, 조선의 표준을 세우다**. 서울: 해냄.
- 임안수(1986). 한국 맹인직업사 연구(미간행).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안수(2005). 근대 한국 특수교육의 기원 연대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3), 293-309.
- 이완우(2002). 2002년 4월 문화인물 **박두성**.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최현배(1984). **우리말 존중의 근본 뜻**. 서울: 정음문화사.
- 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함석헌(1965). **뜻으로 본 한국역사**. 서울: 제일출판사.
- 홍이섭(1971). **세종대왕**. 서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荒川(1970), 박미혜, 이용우 옮김(2000). **구미 농교육통사**. 한국청각언어교육연구회.
-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2003). *What Every Special Educator Must Know*. Arling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Hall, R. S.(Ed.)(1902). *The Life of Rev. William James Hall, M.D.*, New York: Press of Eaton Mains.

- Hall, S.(1978).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McLean, VA: MCL Associates.
- Paik, L. Geprge(1927)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 in Korea, 1832~1910*.  
Pyongyang: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 Perry, J.(1914), "Home for Blind Boys and Young Men in Seoul" *The Korea Mission Field*.  
10(2).
- Underwood, H. H.(1926), *Modern Education in Korea*. New York: International Press.

## A Historical Study on the Pioneer of Special Education in Korea

**Kim, Byung-ha**

Daegu University, Dept. of Special Education

<Abstract>

Korean history in special education can be broadly divided into four different ages, the quickening period (after 15th century), the beginning period (1894-1909), the transitional period (1910-1944), and the developing period (1945-1960's). In this paper, four historically critical characters, the Great King Sejong, R. S. Hall, Duseong Park, and Youngsik Rhee, were selected as representatives of each above period in order to understand Korean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Therefore, this paper discussed the rationale for making the criterion of choosing periods and historical characters and then the characters' overall lives and achievements that finally contributed to Korean special education.

The Great King Sejong at the quickening period opened a road for Braille point in Korean language as he created the Korean alphabet "Hangul", which was the foundation of Korean language. And the creation of the Korean alphabet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fingerspelling for people with hearing impairments. Further, he provided divinator education for the blind at Seounkwan(書雲觀), which was the government office in 1445 (27th year of Sejong in charge).

Since the era of civilization and enlightenment had begun and thus Protestant missionaries brought modern education and Western medicine into Korea at the end of 19th century, R. S. Hall initiated special education of the modern age at Pyeongyang. Duseong Park created 'The Korean Braille point' for the blind in 1926 even when Japan tried to erase Korean language under the colonization of Japan. He also provided the Bible, which was made in Braille point of the Korean language for the blind and devoted his whole life to education for the blind by using the Korean Braille point.

Youngsik Rhee started education for people with deaf and with blind at Daegu in 1946 when governmental supports and services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were totally absent. He established an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for special education teacher and professional preparation in 1956. He also began education for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and with physical disabilities at the very first in Korea in 1966. From the findings of this study, I believe that these four people are historically invaluable characters for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because they all were the pioneers who greatly contributed to the Korean special education.

**Key Words** : characters of special education, Korean special education,  
history of special education